

# 태산이

시조의 음계와 장단을 이해하며 평시조의 초장을 노래 부를 수 있다.



양사언 시

**초장**

태사 - 이 - - 높다 - - 허 - 되 - -

하느 - - - - 르아 - 래 -

메이 - - 로 - - 다 - - - - <후략>

이 노래는 조선 중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양사언의 시조\*로, 어떤 일이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.

\* 시조 | 시조시를 시조창에 얹어 부르는 노래로, 문학에서는 시조시, 음악에서는 시조창을 뜻한다. 초장, 중장, 종장 3장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, 장구나 무릎장단 또는 피리와 대금 등의 가락 악기를 곁들여 반주한다.

## 1 구성음을 알아보고, 가락선을 그리며 노래 불러 보자.

황(黃) 중(仲) 임(林)

- 초장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산일 뿐이로다
- 중장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마는
- 종장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산만 높다 (하나니) 생략

## 2 시조의 5박과 8박을 무릎장단으로 연주해 보자.

**5박 장단**

**8박 장단**

- 무릎장단**
- ⊕ 양손으로 무릎을 친다.
  - ⊖ 왼손으로 무릎을 친다.
  - ⊗ 왼손 검지로 무릎을 짚는다.
  - | 오른손으로 무릎을 친다.